

科學街뉴스

科總 第5代會長

閔寬植 박사 就任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지난 3월 7일 과학기술회관강당에서, 지난 2월 28일 정기총회에서 選出된 閔寬植會長 就任式을 거행했다.

이날 취임식은 李昌錫科學技術處次官을 비롯한 科學技術界人士, 科總任職員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 축하무드속에 거행되었는데, 이날 참석한 과학기술계 인사들은 『科總을 명실공히 과학기술단체의 총본산



』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기대속에 新任會長의 취임사를 경청했다.

閔寬植會長은 취임사를 통해 처음 이 연합회의 회장이 된다는 뜻에서 『과학기술향상을 위해서 조치일관 노력해

科學技術人의 衆智모아 旗手로서 妥章설터

오신 선배들의 뒤를 이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저함, 과학기술계가 거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가 하는 본인의 역량에 대한 회의, 시간과 정력과의 능력의 한계 등을 이유로 상당한 주저했지만 『선배들이 그동안 제한된 귀중하고 심오한 지도와 同志나 후배, 과학기술동지들의 衆智를 모아 새 지대를 열고 앞장을 선다면 무엇이든 하도록 해결 되리라는 막

자신이 해결할 수 있을지의 문이지만 『과거처럼 비록해서 행정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나만 된가 한가지씩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을 위해서 『중앙이 하되 원들이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李昌錫科學技術處次官과 金基衡의원의 祝辭가 있었다.

閔會長 略歷
水原農大(農學科)를 거쳐

연한 자신감에 이차터에서 제기된다고 조심스럽게 취임소감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이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몸에서 봉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나라 國力 등에 비해 부당하게 처우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인력을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一臂之力이라도 하겠지만 主務部處인 科學技術處에서도 적절하고도 적극적인 조성시책을 펴 나가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이어서 閔會長은 과학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日本京都帝大 農學部(農學科) 졸업, 63년에 同大學에서 法學博士學位를 받았고 74년에는 미국 賓들리대학에서 명예政治學博士學位를 취득했다. 그동안 閔會長은 國會議員(3, 4, 5, 6代) 생활을 거쳐 大韓體育會長 大韓을림피워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文教部長官을 지냈으며 현재는 大韓藥師會會長, 大韓조질위원회의 부위원장, 高靈위원장대리직을 맡고 있다.

科學技術研究所

千炳斗所長 취임

한국과학기술연구소는 3월 17일 제 6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임기만료된 韓相準所長後任에 千炳斗박사를 選任했다. 한편 신·구 회장 離·就任식이 3월 20일 KIST 대강당에서 임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는데 千所장은 취임사를 통해 먼저 KIST가 우리나라 유일 임무이한 종합연구소로 성장하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前任 韓所장의 공로와 업적을 치하하고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千所장은 이어 『우리는 수천 100억 달러 달성이란 찬란한 금자탑을 쌓아왔다』고 전제하고 『우리들앞에는 두창적인 기술개발 등 1980년대를 향한 막중한 연구개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KIST도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10년, 15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5개년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이러한 막중한 과제를 연구개발을 위해서 『소장단 이하 연구원에게 타자수에 이르러까지 우리가 갖고있는 모든 가능성을 발은바 임부에 100% 투입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연구실험에만 몰두하기보다는 동료들간의 이해와 인화관결에도 힘써 전직원 모두 잘살수 있는 연구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前任 韓所장에게 기념품이 증정되었는데 千所장은 전직원을 대신해서 행운의 열쇠를 증정했다. 한편 千所장은 그동안 KIST에서 금속공학연구소 부장, 제 2연구담당부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종합특수강 주식회사 사장을 맡아왔다.

核燃料開發公園

梁在炫所長 就任

韓國核燃料개발공단은 지난 3월 21일 理事會를 열고 2代所長에 梁在炫박사를 選任했다.

「閔寬植 會長 記者會見」

學會 學術활동 支援強化
人力養成의 組織化 總括機構 必要
正當한 認識과 權益保障 노력

閔寬植會長은 14일 과총회의실에서 취임후 첫번째記者會見을 갖고 科總이 정부에 바라는 몇가지 희망사항과 科總의 역할에 대해서 피력하고 과총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포부를 밝혔다

閔會長은 科總의 입장에서 정부에 바라는 희망사항을 세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했는데 그 첫번째로 學會學術活動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나가 줄 것을 정부당국에 진의했다.

그는 科總傘下 學會團體들이 1년에 1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부끄러운 실정을 지적하면서 科總이 앞장서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두번째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研究員養成과 함께 호울적인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각종 연구소를 총괄장할 기구의 필요성을 들고 있다.

민회장은 대형연구과제를 수행해 나가려면 研究員의確保가 무엇보다도 시급함으로 장기계획을 세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야 하며 또 연구과제의 중부으로 인한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연구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소들을 총괄 관장하는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소소장인 Project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

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세번째로 과학자를 비롯한 기술인력들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인 지위가 정당하게 평가되도록 보장해 줄 것을 지적했다.

여기서 민회장은 역전정기주자를 예로 들면서 100억불 수출포상에 과학기술인들이 빠진것은 최종인주자에게만 상을 주는 결과와 같다고 지적하면서 區間走者의 공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회장은 이상 정부에 바라는 바를 피력하고 정부와의 협조하에 이더한 문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서 민회장은 과총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 먼저 재마을 기술봉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까지

실시해온 기술적인 지원과 함께 소독중대 환경개선등 새마을사업과 정부시책에 보조를 맞추면서 폭넓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단원들의 재기참모하여 봉사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科總에 가입한

과학회장으로 구성된 영의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을 밝혔다. 영의원회는 『한국』의 과학기술 석학들의 모임인 바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봄으로 이들의 참여의식을 고무시키고 衆智를 모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는 7월에 열리는 國內外韓國科學技術者學術大會를 종전에는 KIST와 공동으로 주관했지만 금년에는 科總이 단독으로在美科協과 행사를 치를 것임을 밝혔다. 민회장은 물론 정부의 보조도 받겠지만 우리 학회들이 힘을 모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科總 會長團

理事陣 構成

韓國科學技術團體聯合會는任員改選에 따라 새로 구성된會長團과理事陣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유개발센터이사장

會 長 閔寬植(農學·남부조직위 공동위원장대리)
副會長 安世熙(物理·연세대 부총장)
安京模(土木·삼일기지개발공사 사장)
沈鍾燮(林學·전북대 총장)
韓格富(醫學·대한의협회장)

馬景錫(化工·엔지니어링협회 회장)

姜信浩(經濟·동아제약 사장)

理事(理學部門) 崔相業(化學·서강대 부총장)

金昌煥(生物·고대 이공대 학장)

金鳳均(地質·서울대 지질학과 학과장)

尹瑞石(家政·중대 가정대학 학과장)

朴榮祖(機械·한대 기계학과 학과장)

李泰源(化工·仁荷工大 교수)

金魯洙(纖維·서울대 교수)

李昌九(農學·서울대 교수)

表鉉九(農學·서울대 교수)

任慶彬(林學·서울대 교수)

鮮于良國(齒科·서울대 교수)

權彝赫(醫學·서울대 의대 학과장)

李鍾泰(金屬·포항종합제철 이사)

玄京鶴(原子工學·원자력연구소 소장)

金在官(機械·포준연구소장)

崔炳午(湖南石油化學 常務)

1978年 全國科學展 개최요강 發表

學術的 價値있는 基礎科學 作品 産業化·敎材化 할수 있는 作品 기대

8月 1日부터 接受, 9月 21日부터 30日 展示

國立科學館은 78년도 全國科學展覽會(第24回) 開催要綱을 확정 발표했다.

科學技術의 振興과 國民生活의 科學化를 위한 風土造成에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되는 科學展은 今年에는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30일간 국립과학관 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한다.

77年 以後 發明·新案品 政府關係用役作品도 接受

이 과학전의 출품작품 내 용은 物理, 化學, 生物, 地學, 産業技術 등 제부분의 작품을 목적으로 하며, 기초과학 분야, 산업기술분야, 과학교재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기초과학분야는 창의성이 있고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작품이어야 하며, 산업기술분야는 산업기술개발에 활용이 될 수 있고 새마을 사업과 직결되어 농어민 소득증대 및 지방특수산업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과학교재분야는 초·중·고등학교의 과학분야로서 응용과학이 있는 것이라야 하는 데 이밖에 77년 이후에 개발된 작품으로서 발명특허작품, 실용공신안등록작품, 정부관계용의 작품도 포함된다. 특히 교원 및 학생작품은 비영리 및 학회 등이 아닌 것으로서 작품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지도를 거친 것이어야 하고 공

동작품은 2인 이내로 하되 학생작품은 지도교사 1명을 포함하여 4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出品作의 規格은 가로 160cm, 세로 90cm 높이 150cm 이내로 규정하고 이 규격을 초과하거나 투수시 설을 요하는 작품은 출품원서 제출시 국립과학관장의 승인을 인도록 하고 있다. 출품원서는 4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과학관 보급과와 각 시도 교육위원회(또는 지방학생과학관)에서 배부하고 원서접수는 8월 1일부터 28일까지 일반인은 과학관에서, 교원 및 학생은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접수하게 된다. 출품희망자는 과학관 소장 양식의 출품원서, 한통(교원 및 학생의 한 학도 시도교육감 추천서첨부)을 작품설명표한 부, 작품설명서 60부(18점씩 30면 이내 좌철제본)와 함께

국립과학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출품된 작품은 사계의 권위자로 구성된 과학전 전시작품 심사위원회에서 창의성, 실용성, 노력의 순위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고, 최고상, 특상, 일반특상, 학생특상, 우수상, 지도교사상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9월 14일에 발표된다. 이에 대한 시상식은 10월 20일 동과학관에서 실시되는 제 최고상인대 통령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함께 해외선진국 과학기술관계 연수 및 시찰의 기회가 앞선된다. 특히 금년에는 우수상의 상수를 늘리고 그 상금도 6만원으로 인상조정(중전 4만원) 하였으며 학생수상작품에 대해서도 별도로指導敎師賞을 수여키로 했다.

國際放射線방어학회 極東地域代表理事 陸鐘澈氏 選任

大韓放射線방어학회 陸鐘澈氏는 국제방사선학회 국제동지역 대표이사로 選任되었다. 지난 3월 17일자로 국제방사선방어학회 회장인 Dr. Charlie Palminter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은 陸氏는 프랑크(위원장)를 비롯한 벨지움, 오스트리아, 헝가리,

미국, 덴마크 등 6개국 대표와 함께 代表理事로 選任된 것이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방사선방어학회는 1964년에 창립, 현재 64개국 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76년 7월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3년마다 열리는 총회의 학술대회에 참석해 왔다.

原子力研究所 2代所長에 玄京鎬 박사 選任

韓國原子力研究所는 3월 24일 제18차 定期理事會를 열고 玄京鎬박사(충청기계공업회사 선임 부사장)를 同研究所 第2代 所長으로 選任했다. 玄所長의 略歷.

玄所長의 略歷. 서울출신 1951년 서울工大電氣工學科卒業, 1959년 英國 Harvey 原子爐學校, 1962년 英國 London 大學 原子核工學專攻 1967년 工學博士學位 취득, KIST 電氣機器研究室長, 충무기계 선임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73년 2월 以來 韓國자립연구소 所長을 歷任한 尹容九박사는 韓國과학력 기술자식회사(KNE) 代表理事社長으로 계속 在職해 있다.

汎太平洋 非破壞檢査

신포지음 및 展示會

4月 26日부터 3日間

서울서 開催

韓國 原子力産業會議(會長 주창균)는 汎太平洋 非破壞檢査委員會와 공동으로 오는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汎太平洋에서 汎太平洋 非破壞檢査 신포지음 및 非破壞檢査 관련 機器展示會를 개최한다.

亞細亞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國際協力の 強化와 NDT (NONDESTRUCTIVE TESTING) 技術向上을 도모키 위해 개최되는 이번 신포지음에는 국내 NDT 전문가를 비롯하여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등지에서 약 3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當學會에서는 이번 신포지음에서 발표될 논문집 1천 5백여 편을 접수하고 있는 데, 현재까지 일본에서 22편,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각각 1편씩 그리고 한국에서 2

편이 접수되었다.

이번 전시회에 전시될 품목은 非破壞檢査機器 展示會 비록하의 會社 또한 NDT 宣傳用品, NDT의 關係된 사진, 기타 이에 관련된 품목 등으로서 출품에 필요한 비용은 체납 출품자가 부담해야 하며 전시의 필요한 장소의 비용은 相當價格으로 한다고 한다.

한편 이 기간동안의 일정을 보면 첫날인 26일에는 개회식과 아울러 각국의 NDT 現況에 관한 基調演說이 있게 되고, 27일에는 放射線透過檢査, 超音波探傷檢査, 磁分探傷檢査 등에 관한 논문이 발표된다. 마지막으로 28일에는 浸透探傷檢査, 音響發射檢査에 관한 논문 발표가 있다. 이 밖에도 29일에는 NDT의 最新技術을 주제로 講演會의 報告를 받게 된다.

韓國物理學會 總會 및 學術發表

韓國物理學會(회장 김희규)는 과학의 날인 4월 21일에 서울에서 제 36차總會 및 學術發表會를 실시한다.

- 1. Recent Topics of the Solar Photovoltaic Energy Conversion Projects
- 2. Recent Advances in Photo-Sensing and Imaging Spectroscopy, and their Applications.
- 3. Recent Progress in the Amorphous Semiconductors and Its Applications

이날 총회에는 특히 大阪大學의 HAMAKAWA YOSHIHIRO 교수(電氣工學科)가 講演을 한다.

大韓造船學會 學術講演會

大韓造船學會(회장 김극천)는 4월 21, 22일 양일간 馬山 코리아마르마造船工業株式會社에서 제 1차 및 學術講演會를 實施할 예정이다. 21일의 실사될 第2次設計基準制定內容 普及세미나의 是는 부산대학 金辰安교수가

「船舶排水管裝置 設計基準」에 관한 것, 韓國船級協會 金俊喆 사무는 「商船機關部 設計基準 標準과 解說」에 대하여 강연하게 된다.

그리고 22일에는 東京大學의 마지다교수를 초청하여 「Fracture in welded steel」에 대한 特講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또한 高速艇에 관한 第2차 세미나도 실시한다.

제미나에서는 서울대학교 李起杓교수의 「발전형 船舶의 內燃機에 관한 것」등 5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韓國金屬學會 臨總 및 學術會

韓國金屬學會(會長 金水泳)는 科學의 달을 맞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Gereth Thomas 박사 특별강연을 비롯하여 각종 학술행사를 마련했다.

먼저 6일에는 전자현미경의 원리자인 미국의 Gereth Thomas 박사(캘리포니아 대학 교수) 초청강연을 KIST에서 실시한다.

15일에는 78년도 임시총회와 춘계학술강연 및 발표회를 조선대학교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모두 10편의 학술발표와 함께 金東勳박사(서울공업대학교)의 「화학장치의 있어서의 스테인레스강의 손상」과 일본인의 杉山道生(株) 일본

웨이즈 대표취체연(씨)의 「진공열처리 기술 및 전망」에 관한 특별강연이 있게 된다. 그리고 과학의 날인 21일에는 전공장제임자를 대상으로 工業振興廳 用役發表會를 갖게 된다. 이 發表會는 금속학회와 관련된 한해동안 공진청으로부터 운영을 한 「기계 국산화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발표회로서 이날 발표회에는 정대 林炳鎰교수의 「주물공장 탈사장치 설계 기준 및 시방서」등 5편이 발표된다.

韓國電子技術 研究所(所長 韓相進)는 오는 4월 1일 강남구 삼성동 科學技術會館 8층으로 移轉하게 된다.

同研究所는 韓國標準研究所 仁川부가 大德專門研究團地로 移轉(3월 27일 이전 완료)함에 따라 표준 연구소가 사용하던 8층전체를 사용하게 되는데 전설과 일부는 이미 지난날에 입주했고, 잔재판(기획, 총무, 회계, 관리부)과 Computer 연구실 60여 평은 4월 1일에 입주하게 된다. 그러나 반도체 연구부(요청개발연구부)와 MAS K 연구부(실제 개발연구부)는 종전대로 KIST에 남게 된다고 한다.

電子技術研·移轉 과학기술회관으로

韓國電子技術 研究所(所長 韓相進)는 오는 4월 1일 강남구 삼성동 科學技術會館 8층으로 移轉하게 된다. 同研究所는 韓國標準研究所 仁川부가 大德專門研究團地로 移轉(3월 27일 이전 완료)함에 따라 표준 연구소가 사용하던 8층전체를 사용하게 되는데 전설과 일부는 이미 지난날에 입주했고, 잔재판(기획, 총무, 회계, 관리부)과 Computer 연구실 60여 평은 4월 1일에 입주하게 된다. 그러나 반도체 연구부(요청개발연구부)와 MAS K 연구부(실제 개발연구부)는 종전대로 KIST에 남게 된다고 한다.